

전기통신 국제기구

# 통신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 활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연구

김 은 주\* 박사  
안 진 우\*\*

목 차

1. 서론
2.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3.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의 대응 현황
4.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의 책임 부서
5.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의 담당 인원
6.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의 관련 부처 및 기관
7. 각국의 해당 관련 부서 및 기관간의 조정 방안
8.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연구기관
9. 제언

\* 통신개발연구원 (KISDI) 초빙 연구원

체신부 통신정책실 파견근무

\*\* 통신개발연구원 (KISDI) 위촉연구원



## 1. 서 론

정보 통신의 기술이 고도화 되어가고 서비스가 다양해 짐에 따라 국제화시대라는 표현이 언제인가 부터 친숙해졌고, 정부(특히, 체신부) 역시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인 대처를 주요 업무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및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오랫동안 고립되어 왔던 우리의 의식 및 사회구조는 여전히 국내 지향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활용은 외무부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비록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 기구의 회의 및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아직 기존 관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편, 정보·통신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세기 이상 정부 혹은 주관청(예, 체신부)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던 각종 관련 지역(예, APT등) 및 국제통신기구(예, ITU, INTELSAT, INMARSAT등) 역시 민영화되어가는 각종 운영체 및 민간제조업체 등의 참여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혁신 등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새로운 기구들(예, ETSI, T1, TTC 등)이 신설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기술적인 문제로만 관심을 받고 취급되어 왔던 동 분야가 각종 貿易의 매개체이자 대상 그 자체(예, 정보·통신 서비스)로 二重的 역할로서 탈바꿈하게 되자, 관련 기구들(예, ITU, GATT, OECD 등) 사이에서 조차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그 회원국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본 소고는 약 20여개 국가의 체신부 혹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이 7개 질의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답변한 자료 및 관련 기구 활동에 참여했던 참석자의 경험을 기초로, 정보·통신분야에 관련된 지역 및 국제기구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참여 및 대응 현황은 어떠한 지를 비교·검토하여, 21세기를 향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각 기구들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질의 1** 귀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어떠한 지역 및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기구는 어떤 것인가?

**미국** 전기통신 정책과 관련된 많은 지역 및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점적으로 참여·활용하고 있는 기구는 ITU, INTELSAT, INMARSAT, OECD, CITELE 등이다.

**일본** 각각의 기구는 그 자체의 설립목적과 특정한 활동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입하고 있는 많은 지역 및 국제기구의 중요성에 특별히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기구에 비해 ITU에 우선권을 두고 그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년동안에 전기통신은 무역협상에 있어 점점 주요문제로 대두되면서 GATT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Uruguay Round 협상은 주관청이 해결해야할 가장 우선되는 문제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INTELSAT 및 INMARSAT의 관련문제는 기본적으로 서명자(예, KDD)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당사국인 주관청에 의해 처리될 문제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INTELSAT 협정 제14조 d항과 INMARSAT 협정 제8조<sup>1)</sup>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정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최근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일본은 APT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전기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모든 기구들의 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 및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그

---

<sup>1</sup> INTELSAT의 제14조 d항이란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고 INMARSAT의 제8조란 “타 우주부문”을 명시한 조항인데, 2협정 모두 신설되고 있는 별개위성들이 각 위성기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문제를 취급하고 있고, 수년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슈.

지원범위는세계 전기통신 기구인 ITU의 세계 및 지역개발회의, ICAO, IMO, GATT, OECD, IIC와 지역 전기통신 기구(예, CITELE, Caribbean Telecommunication Union 등)등의 지원에서 부터 ITU에 의해 개최된 다양한 Telecom Exhibition과 같은 다양한 국제활동 등을 포괄한다.

- 독일** ITU, UPU, INTELSAT, EUTELSAT, CEPT, ETSI, INTERSPUTINIK 등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들은 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고, 또한 지역기구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 기구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보다는 고루 중요하게 취급하며 대응하고 있다.
- 스페인** 많은 가입 기구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참여하고 있는 세 개의 기구는 ITU, CEPT, ETSI이다.
- 스위스** ITU, INTELSAT, INMARSAT, EUTELSAT, ETSI, CEPT, ETNO, EURESCOM등에 가입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ITU의 본부가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ITU 관련 많은 회의에 스위스 주관청(특히, PTT)의 지원은 유독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 싱가포르** 최근 국내 통신정책의 변화로 정책(예,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of Singapore : TAS)과 운영(예, Singapore Telecom)을 분리·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TAS를 중심으로 ITU, APT, APEC, ASEAN POSTEL, INTELSAT, INMARSAT, UPU 등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특히, ITU는 그 활동 범위 및 중요성 때문에 TAS가 가장 중심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구라고 한다.
- 인도네시아** APT, APEC, Asian ISDN Council, PTC외에 ITU, INTELSAT 등에 가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여러 기구의 의장직을 맡은 바 있고, 일부 관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ITU의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국제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 태국** ITU, INTELSAT, INMARSAT, GATT, USRI 등 국제기구와 ASEAN, APT, APEC, AIC, JICA, AEU 등 지역기구에 가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APT의 본부를 首都에 유치하고 있고 의장직도 맡고 있으며, ITU의 지역 사무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            체신부를 중심으로, ITU, INTELSAT, INMARSAT과 같은 국제기구와 APT, APEC, AIC등 지역기구에 가입하고 있고, 주관청인 체신부는 ITU 그리고 운영체인 한국통신은 서명자로서 INTELSAT 및 INMARSAT의 활동에 각기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유사한 이유로 GATT의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나, OECD에는 1990년대 중반에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ETSI와 같은 유럽지역 표준화 기구에는 단지 옵저버의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에 대응 현황

**질의 2**            귀국 정부는 ITU, INTELSAT, APT, ETSI 등 전기통신 분야의 지역 및 국제기구의 문제와 활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a. 각 관련기구에 단순 참여  
       b. 각 기구로부터 제기된 특정 이슈를 상세히 조사 및 대응  
       c. 연구소 또는 운영체 등 관련기관에 서류/업무를 양도)

**미국**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원의 정부(예;연방, 주, 지방 정부) 및 많은 민간 기관들이 上述한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각종 국내 기관들의 이해 관계를 국내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의 해당문서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 분석케 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케 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국내 의견 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최종 미국의 입장을 결정한다.

**일본**            국가의 이익 추구 차원에서 국제 및 국내 정보통신의 기술과 서비스의 증진을 통해 국민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 추구 차원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범세계적인 정보통신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 목적으로 각종 지역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U의 CCIs 활동을 통해 Universal Personal Telecom (UPT), Telecom Management Network(TMN), Message Handling System (MHS), Directory System(DS), Audio Graphic Conference(AGC), 그리고 ISDN 등에 관한 연구가 자국의 관련기관들(RPOAs와 SIOs)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GATT의 UR 서비스 무역 회담에서 전기통신부속서의 작성을 위한 많은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APEC을 통해 Teleport와 인력개발(Personnel Development)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한편, IMO와 ICAO의 주관청은 교통부이지만, 그 활동이 전기통신분야의 국제협정 및 협약 체결과 관련이 있을 경우 체신부도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입장 수립에 기여를 한다.

반면에, 오늘날 지역표준화 기구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그 설립으로 인해 ITU는 물론 다른 지역의 표준화 기구 설립 여부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유럽의 표준화기구인 ETSI에 일본은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 역시 여러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ITU의 경우에는 연구반과 총회로 구성된 CCIR과 CCITT의 구조와 흡사한 일명 '캐나다 국내기구'(Canadian National Organization : CNO)라는 국내 조직을 갖고 있다. CCITT에 해당하는 CNO는 국내연구반의 의장과 집행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으며, CCIR에 해당하는 CNO는 자문반의 보조를 받는 집행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구성원의 자격으로는 정부와 산업체의 대표(representative)가 동 연구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ITU의 세계 및 지역주관청회의를 위해, 주관청은 정부와 산업체 및 기타 기관(예, amature organizations 등)으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밖의 전권위원회의와 관리이사회는 정부와 산업체의 대표들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의에 의해 준비가 행해진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체신부(Departement of Communication) 차관이 총괄·운영한다. 참고로, ITU의 각종 회의 및 위원회의 의장직을 캐나다 출신

이 많이 역임하고 있다.

INTELSAT 및 INMARSAT의 준비는 제안된 특정 의제의 분석 및 지원을 위해 필요시 International Relation Branch(IRB)에 의해 조정된다. 이 준비는 주관청내에서 처리되며 다양한 의제에 관한 입장 정립을 필요로 할 경우 자체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국제위성 운영체인 Teleglobe Canada는 국내적 차원의 준비와 회의 참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위성 운영체인 Telesat Canada와 상호 조정을 한다.

APT, APEC, PTC에 관련된 활동도 IRB를 통해 체신부내에서 조정되며, 특히 이들 기구의 활동에 관계되는 문제의 지원을 위해 산업체와의 연락은 체신부의 Technical Marketing and Economic Development Group에 의해 이루어진다. PTC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시 체신부의 태평양 지역사무소(Pacific Regional office)에 의해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한편, ETSI와 관련해서 체신부는 정부와 산업체가 참여하는 공식기구인 '캐나다 기술표준자문이사회'(Technical Standard Advisory Council of Canada : TSACC)로 알려진 표준감독기구를 설립하였다. 다양한 국가표준기관을 대표하는 TSACC의 주된 업무는 국가표준화활동을 위해 국제적 동향을 제공하고 다른 표준화기구(예, ETSI)와 연락하는 것이다.

## 독일

가입한 각종 국제기구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 관련기관의 활동과 상호 조정된다. 각 기구 활동에 대한 대응방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각 기구로부터 제기된 특정 이슈를 상세히 조사 및 대처하고 있으며, 특정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소 또는 운영체 등 관련기관에 서류 및 업무를 이양시키고 있다. 참고로, ITU의 CCITT 및 ETSI등 표준화 기구의 現 위원장은 독일인 출신이다.

## 스페인

일반적으로 국가의 관계기관에 문서 및 활동을 위임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를 처리하기도 한다. 특히, 스페인어 역시 공식언어로 채택되어 있는 ITU의 회의에서는 총회의 의장직도 맡고 발언도 많이 하는 국가중에 하나이다.



- 스위스** 일반적으로 스위스 PTT가 주관청의 자격으로 주요한 국제기구에 참가하여 활동하며 ITU의 CCI's 연구반 의장직을 맡는 등 오랫동안 동 분야의 기구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의 연구는 사안별로 이루어진다.
- 싱가포르** 신설된 체신청(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은 모든 전기통신과 우정 문제에 관해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하고 자문한다. 싱가포르는 가입한 각종 지역 및 국제기구들을 성실히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관련된 지역 및 국제기구의 모든 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전기통신의 발전도에 비해 국가의 규모 및 인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아직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거나 현저하지 못한 실정이다
- 인도네시아** 아·태 지역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각종 지역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방식의 특성으로는 특정한 의제에 대한 분석 및 의견 반영이라는 차원 보다는 각 기구의 회의에 의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예, ITU의 제46차 관리이사회에서 Mr. Djivatamou가 의장 및 CTD에서 Mr. Abdulrachman이 위원; APT에서는 Mr. Setyanto가 부의장 및 Mr. R. Sulistyoga SG 의장;INTELSAT에서는 Mr. J. L. Parapak이 Board of Governor로 각기 활약).
- 태국** 정부는 ITU, INTELSAT, INMARSAT, GATT, APT, ASEAN, APEC, AIC, JICA, AEU와 같은 정보 통신분야의 지역 및 국제기구 중 일부 기구에 가입하여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교류하며 분담금을 내고 있다. 또한, 특정 문제에 관해 Communication Authority of Thailand, Telephone Organisation of Thailand, Public Relation Department 등 관련기관이 연구 및 대응하며, 필요시 연구소 또는 운영기관에 관련된 서류 및 활동을 이양한다.
- 한국** 한국 역시 국익 추구의 차원에서 ITU, INTELSAT, INMARSAT, GATT, APT, APEC, AIC, PTC 등 가입한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특정 기구의 의제별로 엄밀한 분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ITU의 WARC-92 혹은 추가전권위원회회의의 준비반 회의 등과 같이 주요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체신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로 구성된 국내준비반을 설치하고 국가의 입장을 수립하여 반영시키는 등 최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GATT의 UR 서비스 무역 회담에서 일부 선진국들과 함께 전기통신부속서의 작성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APEC의 EDI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ITU의 CCIIs 관련 특정한 기술적 문제는 산하 기관 혹은 연구소에서 연구·검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통신기술협회가 ITU의 CCIIs 연구반과 유사한 구조로 조직되어 있고 체신부와 관련기관들 사이를 연계하며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4.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의 책임 부서

**질의 3** 귀국의 주관청의 어떤 부서(들)가 위에서 언급한 각종 기구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미국** ITU, INTELSAT, INMARSAT 등은 국무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 연방항공국, 미국 해안경비대가 관여하기도 한다. 특히, 국무부내 국제통신 및 정보정책국(Bureau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olicy)이 전문적으로 전기통신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ITU는 우정성내 통신정책국과 전파국(주파수할당, 운영, 라디오 모니터링의 경우)이 각기 담당하고, IMO 및 ICAO는 다른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우정성내 통신정책국 및 전파국에서 담당한다. INTELSAT, INMARSAT, APT, APEC, PTC, PECC 등도 우정성의 통신정책국에서 주로 업무를 관장한다.

반면에, GATT와 OECD는 장관실(Minister's Secretariat)내의 국제정책조정과(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Division)에서 취급해오고 있다. 한편, ETSI의 경우 주관청이 정부가 아니지만 기술적 문제는 필요한

경우 통신정책국이 처리하기도 한다.

특히, 1992년 6월 1일부터는 우정성내 국제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통신정책국 산하의 국제기획과와 국제협력과 그리고 장관실 산하의 국제정책조정과를 통합하여 국제정책과, 국제기구과, 국제협력과로 구성된 국제부(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를 장관실의 직속으로 편입·조정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국제적인 사무처리의 증가와 중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신분야에서의 국제문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International Relation Branch가 국제회의에서 주관청을 대표하고, 적절한 경우 ITU의 각종 하위기관의 활동에 그 권한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적절한 경우 총괄적인 책임과 공동 감독을 유보하여 체신부의 다른 부서 또는 민간분야의 개인에게 특정기능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교통부가 주관청인 IMO, ICAO를 제외하고 다른 국제기구에도 적용된다.

**독일**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조정의 책임은 규칙 및 국제정책을 취급하는 체신부(Ministry)내 제2과(Department 2)가 지며, 특별히 실질적 문제는 정부의 다른 부서 또는 Federal office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FOPT)가 정부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도 있다.

**기타** 스페인의 경우 체신부내 국제협력국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며, 스위스의 경우 일반적 문제는 PTT내 국제협력과(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에서 취급하며 특정 문제는 해당 부서 혹은 과에서 분담·처리한다. 한편, 싱가포르의 TAS가 전반적으로 지역 및 국제기구의 업무를 관장하나, 특별히 정부의 다른 부서가 그들 업무와 관련될 경우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관련된 부서간의 조정은 국제문제 전문가에 의해 실행되며, 전파 문제는 전파국의 관계 직원에 의해 처리된다. 또한, 태국은 체신부내 국제협력과(International Service Division)가 상술한 각종 기구들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파국은 동 課를 경유하며 IFRB가 취급하는 각종 주파수 문제를 관리한다.

**한국** ITU의 문제는 체신부내 통신정책실과 전파관리국이 관련 분야별로 담당하며, GATT의 문제는 체신부내 통신협력단과 경제기획원 등 정부의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외 INTELSAT, INMARSAT, APT, APEC, ESCAP 등은 관련 산하기관의 보조를 기초로 체신부내 통신정책실의 통신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 5.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의 담당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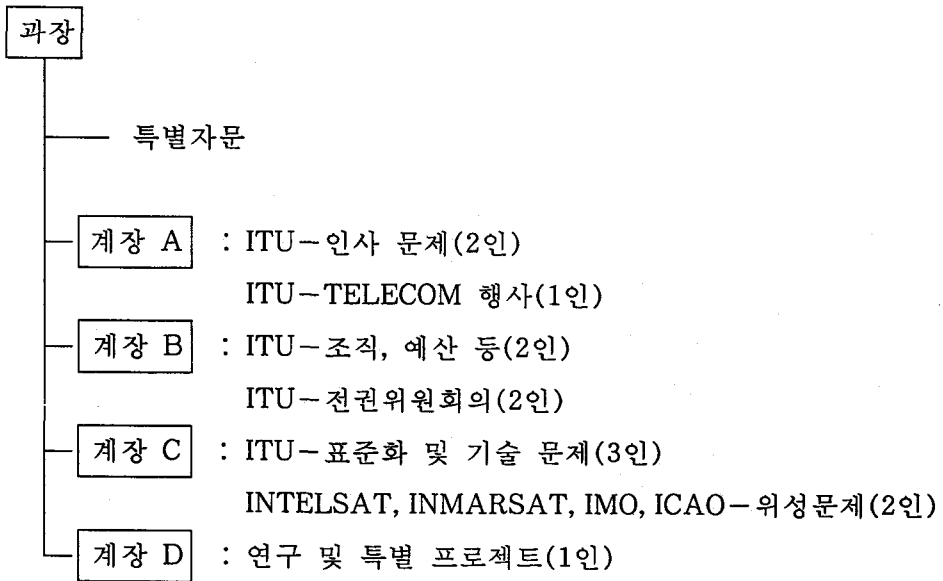
**질의 4** 귀국 정부내 어떤 직위의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각기 관련 기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미국** ITU, INTELSAT, INMARSAT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부, 상무부 및 FCC에서 각각 3~5명씩 담당하고 있고, 그 직위의 범위는 국무부(CIP)와 상무부(NTIA)는 차관, FCC는 의장에서부터 과장 혹은 특별 자문에 이르기까지 해당 문제에 따라 각기 다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정한 기구의 회의(예, ITU의 관리이사회 혹은 전권위원회의 등) 개최시 회의의 성격에 따라 특정인을 지명하여(예, 전직 정치인 혹은 국무부의 고위직 등) 수석대표에게 대사(Ambassador)의 직책을 부여하는 등 외교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 혹은 FCC 소속의 변호사 및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들의 활용을 통해 동일한 회의에 수십년 참여케 하여 특정 회의 중에서도 특정 의제별(예, 예산, 인사, 주파수, 법률 등)로 해당 자문가들의 권고하에 국가의 입장을 반영·관철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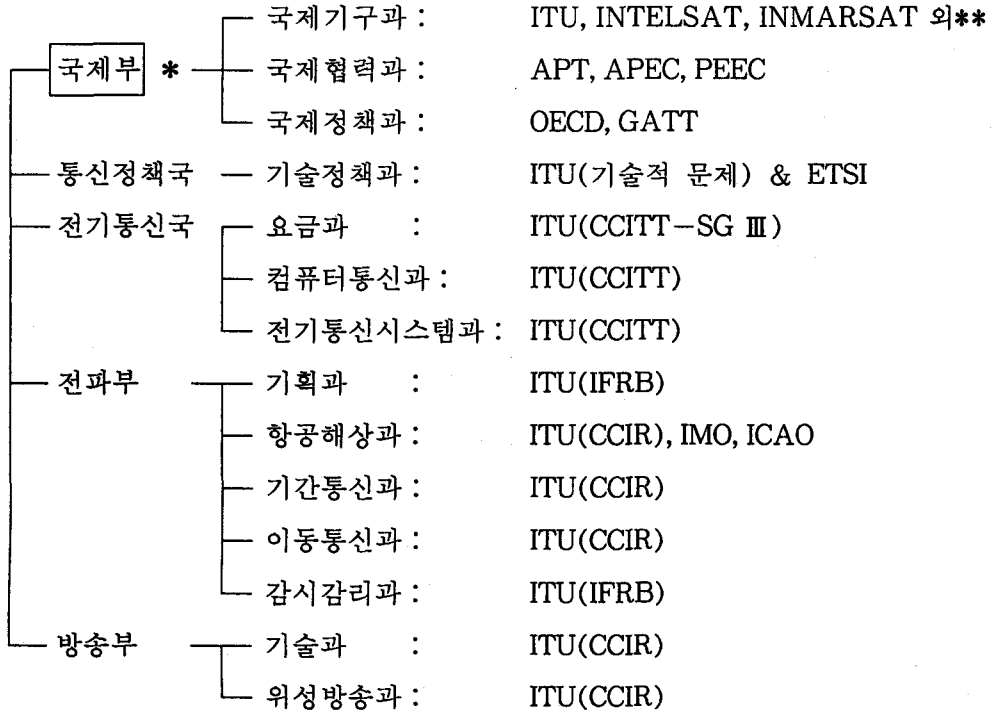
**일본**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국제 및 지역 기구를 세분화시켜 <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기구별로 계장을 제외한 2~3인의 직원을 두고 상시체제하에서 해당 의제를 처리하고 있다.

〈도표-1〉 일본 : 우정성내 국제기구과의 조직도



이외 기술 및 전문적인 문제는 체신부의 다른 局에서 관계 직원들에 의해 다음 〈도표-2〉에서와 같이 공동으로 조정 및 대응하고 있다.

〈도표-2〉 일본 : 국제기구업무에 관련된 우정성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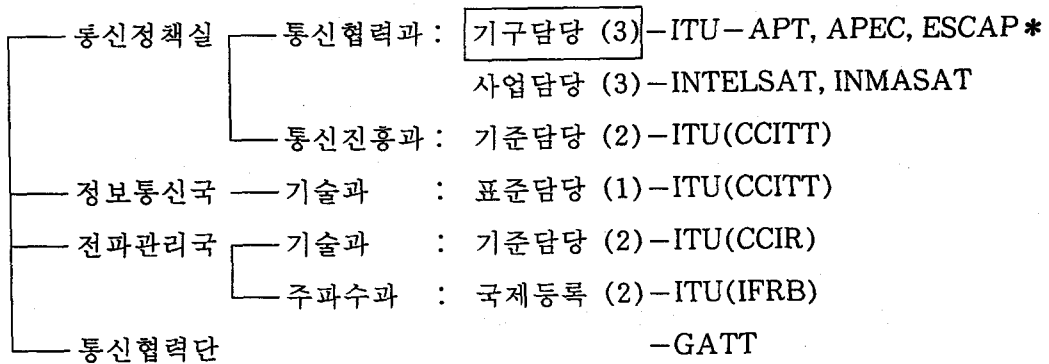
(\* 長官室 산하기구

\*\* 〈도표-1〉 참고)

- 캐나다      특정 국제기구를 전담하지는 않지만, 상술한 IRB의 국장급 1명, 과장급 3명, 고위직 직원(senior-level officers) 20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독일        일반적으로 1인이 1개 기구를 담당하며, ITU 및 CEPT와 같이 매우 중요한 기구의 경우 2~3명이 전담하고 있다.
- 기타        스위스의 경우 약 90명이 국제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조정, 정책, 주파수 운영 문제들을 각기 1명씩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3명이 국제 기구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처리하고 있다.
- 한국        〈도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U를 포함한 APT, ESCAP, APEC의 문

제에 대해서는 통신정책실의 통신협력과의 기구담당계 계장 외 2명이 각종 회의의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ITU의 CCITT 문제는 통신진흥과 및 정보통신국의 기술과의 기준 및 기술표준 담당이 창구 역할만을 하고 있고, CCIR 및 IFRB 관련 문제는 전파관리국에서 이 슈별로 분담·처리하고 있다. 한편, 최근 INTELSAT 및 INMARSAT은 통신협력과의 협력담당계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표-3〉 한국 : 국제기구업무에 관련된 체신부의 조직도



(\* 機構擔當係에서만 기구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同係 역시 관련 의전 업무도 겸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할 점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외에, 통신협력과의 기구담당을 제외하고 다른 局 또는 課의 경우에는 上述한 기구업무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 국내업무를 담당하면서 加外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제 분석은 차치하고 동향 분석도 실제 어려운 실정이다.

## 6.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의 관련 부서 및 기관

**질의 5** 귀국의 주관청 이외에 어떤 국내기관이 상술한 관련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 미국** ITU의 경우 국무부 및 FCC 외에 Bell South, Motorola, NCR 등 50여개 이상의 민간 운영체 및 제조업체들(RPOAs 혹은 SIOs)이 CCIs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INTELSAT과 INMARSAT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Communication Satellite Corporation(COMSAT)으로서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AT&T, MCI, 방송국, 선박소유주, 항공산업체, 석유산업체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다른 국내기관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 일본** ITU의 경우는 우정성 외에 외무부, 그리고 NTT, KDD, NEC 등 약 30개의 민간 운영체 및 제조업체들(RPOAs 혹은 SIOs)이 CCIs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INTELSAT과 INMARSAT의 경우는 외무부와 서명자인 KDD도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APT에는 외무부와 준회원인 KDD 및 NTT도 참여하고 있고, IMO와 ICAO는 외무부와 교통부가 함께 관여하고 있다. 한편, APEC, GATT, OECD는 외무부 외 기타 관련 정부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PTC 및 PECC에 외무부 및 기타 관련 정부부서의 민간기관(예, 운영자, 제조업체)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경우는 주관청인 우정성과 외무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각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편 ITU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우정성의 직원을 주제네바 대표부에 파견 근무시키고도 있다.
- 캐나다** 다양한 정부 부서와 기관이 특정 기구의 해당 사안에 따라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주관청이 교통부인 IMO와 ICAO 외에 다른 기구들에는 외무부, 국방부, 연구소, 국제개발기구, 다양한 예술 및 문화단체, 방송 위원회, 민간분야의 전기통신 관련 업체 및 회사들이 체신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기타** 독일의 경우는 연방 전기통신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 역시 관련 운영업체 및 몇몇 기업이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민간분야의 제조업체 및 이용자단체가 ITU의 CCITT와 ETSI같은 특정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민간운영체가 된 Singapore Telecom, Singapore Post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ITU의 경우 체신부를 중심으로 운영체인 한국통신과 데이콤(RPOAs)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CCIs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기관들 數와 그들의 대응 현황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 INTELSAT 및 INMARSAT에는 서명자인 한국통신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편, APT에는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이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7. 각국의 해당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조정 방안

- 질의 6** a. 귀국정부는 전기통신분야에 관련된 상기 참여 기관들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예, a. 특별위원회 구성 b. 특별국내규칙 제정)  
 b. 만약 특별위원회 그리고/또는 규칙이 있으면, 그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오.

**일본** ITU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정책 형성을 위해, 우정상 산하에 'ITU위원회'와 'ITU 주관청회의 위원회'라는 두 기관이 있는데 이들의 합병이 최근 검토중에 있다. 한편, ITU의 CCITT와 CCIR 그리고 이들의 각종 연구반의 활동(즉,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기술심의회'라는 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ITU Association of Japan(ITUAJ)'과 같은 지원기관도 상설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INTELSAT, INMARSAT과 같은 정부간 기구의 경우 특정문제는 우정성과 외무부가 필요시 공동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 캐나다** ITU의 각종 연구반에 관한 관련규칙은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합의 혹은 조정되며, 분쟁이 야기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해결된다. 그 결과 제정된 규칙은 모든 참가 혹은 관련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便覽에 기재하고, 필요시 국내 및 국제 발전에 일치하도록 편람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 편람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을 위한 매우 유용한 指針의 역할을 한다. 특히, ITU의 CCIs 활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영규칙의 범위내에서 CCIs의 구조와 동일한 국내연구반을 상설 운영하기도 한다.
- 독일** 정부 혹은 FOPT 통솔하에 각종 기구들의 문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國家名으로 제출 혹은 발표되는 모든 기고(contribution)는 이 위원회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 기타** 스위스의 경우 고위 차원의 국제문제 조정은 정부 산하의 국제문제과(4명)에 의해 이루어지며, 실무 차원의 조정은 사례별로 특별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책 문제는 TAS, 운영 문제는 Singapore Telecom 같은 운영체가 각각 담당하며, 필요시 정부가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위원회를 설립하여 문제를 조정하게 되는데 그 예로 1991년에 ASEAN POSTEL Meeting의 개최시 이를 위하여 소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서신, 회의 및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모든 국제 및 국내기구의 문제를 조정하는데 그 특별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소집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특별한 국내규칙하에 운영된다.
- 한국** 일본이나 캐나다 처럼 관련 기관들의 활동 및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체신부 산하에 특별한 위원회 혹은 관련규칙은 없으나, 필요시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會議를 소집하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기술협회가 주로 ITU-특히, CCIs 표준화-문제에 관련하여 체신부와 관련기관들을 연계하는 회의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CCIs의 참석 및 기고(Contribution)를 위한 창구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 8. 각국의 지역 및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연구기관

- 질의 7 a.** 귀국에는 주관청 또는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보조/지원하는 연구소가 있습니까?
- b.** 만약 있다면, 그 명칭과 주요 연구 및 보조 범위를 설명해 주시오.

- 미국** 정부 및 민간 기관들에 의해 운영 및 지원되는 많은 연구소 뿐 아니라 계약직의 자문 및 학술기관의 구성원 등 전문가 제도가 매우 발달되었으며, 이들은 전기통신분야의 기초연구 및 정책지침을 검토하고, 급변하는 기술의 사회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의 관련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전기통신 문제에 대한 국내 정책지침 개발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이용된다.
- 일본** 우정성 산하에 Communication Research Laboratory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방송,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을 포함하여 각종 기술적 문제의 처리를 위해 정부를 지원하며, ITU Association of Japan (ITUAJ) 역시 특별한 기술적 문제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등 각종 관련 문제에 대해 주관청을 보조하며, 국내 전기통신 하부구조의 발달을 도와 주도록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연구소를 설립·활용하고 있다. 또한, 장비의 검증 및 규격과 같은 기술적 문제의 보조를 위한 실험실도 있는데, 이들 연구소 및 실험실들은 정부로 하여금 전략적인 優先政策 혹은 目標를 설정 및 달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 기타** 독일의 경우 정부를 대신하여 FOPT가 주로 필요한 연구 등 관련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때때로 통신과학연구소(Scientific Institute for Communication)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스위스는 연구개발부에서 ITU의 CCI's 및 ETSI와 관련된 많은 문제에 대해 연구 및 책임을 져왔다. 반면에, 싱가포르, 태국 등 개도국에는 이에 상응한 연구소가 없다.

한국 ITU의 CCIs 관련 기술적인 문제는 체신부 산하로 귀속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ITU, GATT, APEC와 관련된 정책적 문제는 통신개발연구원이 관련 연구 수행 및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관청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전파연구소(RRL)는 ITU와 같은 전파 관련 기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 9. 제언

동 설문지에 응답을 해준 국가들은 현재 170여 ITU의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ITU를 비롯한 각 기구의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우리의 정책 방향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각 응답 내용을 비교·분석한다는 차원에서는 각국의 해석차이로 인해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각국의 공통점은 통신관련 많은 지역 및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참여 및 대응하고 있는 기구는 ITU라는 점과 일본,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ITU-특히, 표준화 기관인 CCIs-와 유사한 조직을 겸비한 국내기관이 상설·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주관청 이외에도 수많은 운영체 및 제조업체들이 그 활동에 적극 참여 및 전문적인 기고의 제출 및 각종 연구반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선진국들의 대응체계가 좋다고만은 평가할 수 없다. 즉, 일본의 경우 지역 및 국제기구의 대응 조직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그 지위 역시 최근 구조개편을 통해 장관의 통솔하에 운영되지만 우정성의 경우 담당자의 임기가 약 1년 남짓하기 때문에 특정 문제에 관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사실,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도 한국통신, 한국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이 최근 ITU의 CCITT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참여에 의한 전문가 양성, 전략적이고 수준 높은 기고문 제출과 아국의 입장 관철 등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들 기구관련 담당 인원이 절대 부족하여 많은 경우 해당 의제별로 분석 및 대응은 차치하고 필요한 동향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경제 및 통신의 발전 규모면에서 인도네시아 및 태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국제기구의 의장 등 고위직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주요 이유로서는 우선 기구의 문제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가 혹은 관련기관의 비용-효과 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적다는 점과 참석자의 言語的 장애 요소 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간 기구에서 의장직을 맡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관료(적어도 국장급)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아직 국제문제 보다는 국내문제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국제문제에 관심이 적고, 따라서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를 향한 정보화시대 혹은 국제화시대를 早期에 맞이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각 관련기관 혹은 개인 역시 지역 및 국제기구를 비롯한 광의의 세계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이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上記 7개의 質疑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주관청 중심의 대응방안을 제안해 본다.

1. ITU를 중심으로 INTELSAT, INMARSAT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슈를 분석하여 향후 무궁화위성시대의 개막을 대응하고, APT 및 AIC 등 아·태지역 기구에서 의장 등 고위직의 진출을 시도하며, 특히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예, ETSI)과 달리 아직 지역표준화기구가 없는 동 지역에서의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립 및 호주와 일본 등 동지역국가들과의 쌍무협의시 의제로 선정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가입을 추진중인 OECD 산하 정보·통신·컴퓨터(ICCP) 위원회의 활동 및 연구를 시의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하겠다. 한편, 일본과 캐나다 처럼 IMO 및 ICAO의 문제도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필요시 체신부에서도 향후 대응할 필요도 있다.
2. 각 기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는 기구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겠으나, 근본적으로 각 기구의 현안 이슈 및 회의의 의제를 장·단기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국가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혹은 조직체를 형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주무 관청인 체신부내 각종 기구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하기에는 다른 나

라에 비해 그 인원이 절대 부족하며, 각 室·局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는 일부 ITU의 업무조차 相互調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처럼 長官室 산하로 국제부를 확대·편입하지는 못하더라도 기구별로 필요한 업무와 인원을 파악·조정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던지, 미국처럼 기구의 특성 혹은 담당 업무에 따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개인의 양성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4. 물론 정보·통신에 관련된 문제로서 정부간 기구의 문제는 체신부가 주축이 되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통신기술의 발달 및 무역 등 경제적 함축성에 의해 기구에 따라서는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특히, 표준을 취급하는 공진청) 등과의 유기적인 의견 조정을 위한 특정 媒介體 혹은 組織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환경의 변화로 정부 중심의 기구(예, ITU)에도 표준화 등의 문제는 많은 민간 운영체 및 제조업체들이 참여하여 自國 혹은 自會社의 정책 수립에 반영함은 물론 자회사 제품의 규격을 국제표준화시켜 세계시장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겠다.

5. 이웃 개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社會科學과 自然科學 분야를 지원하는 兩大 연구소(예, 통신개발연구원 & 전자통신연구소) 및 전파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이 우리 체신부산하에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연구소가 치중하고 있는 국내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세계গুল지의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및 국제기구별 혹은 전문 분야별로 일관성있는 연구체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연구소 특성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 전기통신관련 주요 국제 및 지역기구명칭 및 특성비고

기 구	명 칭	성 격 및 관 련 부 분
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	-아시아지역 정부간기구 -전기통신 기술개발 및 협력
CEPT	Conference of European Postal and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 : 유럽 우편 및 전기통신주관청회의	-유럽지역 정부간 기구
CITEL	Conference on Inter-American Telecom- munication : 미주간 전기통신회의	-미주지역 전기통신개발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i- zation Institution : 유럽전기통신표준화협회	-유럽지역 비정부간 기구 -전기통신표준화
EUTELSAT	European Satellite System : 유럽위성기구	-유럽지역 비정부간 기구 -위성통신
GATT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riff :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일반적 국제기구 -전기통신서비스관련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 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UN 전문기구
IM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 zation : 국제해사위성기구	-정부간 위성기구 -국제위성통신서비스(특히, 해상선박간, 선박과 육상간 의 위성통신)

기 구	명 칭	성 격 및 관 련 부 분
INTELSA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lite Organization :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국제위성통신서비스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수송의 모든 기술적 문제에 관한 규칙과 관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비정부간 표준화기구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정부간 국제기구 -전기통신 문제를 총괄하는 UN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거시적 및 미시적 경제분야의 정책 제시 및 지침 제정 -UN기구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 유엔개발계획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